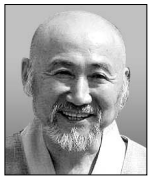


일주문



선서화전 수익금 조계사에 전달
선서화가 범주 스님은 선서화전에서 얻은 수익금 2000만원을 조계사 시민선방 건립을 위해 10월 31일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에게 전달했다.



운흥사 천불천등 정안점등법회 봉행
대구 운흥사 주지 종은 스님은 야외 천불보전을 건립하고 10월 29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천불천등 정안점등법회를 봉행했다.



광제사 개원 3주년 법회
광주 광제사 주지 석두 스님은 11월 2일 미타전에서 광제사 개원 3주년을 맞아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 강연
이여령 전 문화부장관은 11월 15일 오후 3시 동국대 중앙당에서 동국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 인문학의 뿌리는 불교'를 주제로 강연한다.



제9회 김동리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승원씨가 장편소설 <소설 원호>로 김동리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9회 김동리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국 민간 수공예품 전시회
이근우 청담문화센터 원장은 중국 영성시 대외문화교류협회를 초청해 '민간 수공예품 전시회'를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청담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대구경북포교사단 정기연수
대구경북포교사단 최문성 단장은 400여 명의 포교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10월 29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불기 2550년 하반기 정기연수회를 개최했다.



불일청년회 '원각의 밤' 개최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 이승동 회장은 창립 27주년을 맞아 11월 11일 오후 5시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원각의 밤'을 개최한다. (062)223-3168

'직지 사랑' 실천 박충일씨 타계

조계종 중앙신도회 박충일 고문(사건)이 11월 1일 오전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1935년 출생한 박 고문은 법국민직지 회장 등을 역임하며 '직지' 사랑을 펼쳐왔다. 또 신홍인쇄 대표이사, 대한인쇄 문화협회 회장, 불광사 신도회장 등을 맡으며 불교계 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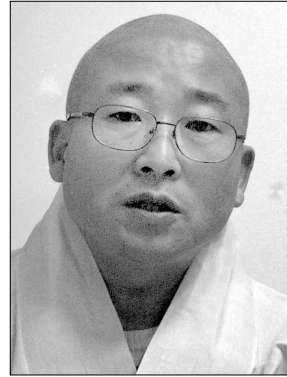


"행복 나누고 공덕 쌓는 음악잔치"

이웃돕기 자선음악회 여는 범경 스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고민과 행복을 나누고, 좀더 여유로운 분들에게는 복지는 길을 열어주는 자선음악회입니다."
광진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범경 스님(서울 능인정사 주지·사진)이 11월 10일 오후 2시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 공개홀에서 '2006 더불어 살아가는 날 어려운 이웃·난치병 환우와 함께 하는 나눔이 하나되는 세상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자치구 단위로 통쳐서 나눔의

음악회를 만든 것은 도심포교당이 자치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는 스님은 "어려운 이웃 300여명을 초청해서 음악도 즐기고 부처님 자비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선음악회 1부는 자비의 쌀 및 병원 의료비 지원 전달식과 유공자 표창, 감사패 전달 등이 이뤄진다. 2부는 방송인 김병조씨가 사회를 맡아 불자가수회 회장 김흥국 씨를 비롯해 남궁옥분 이은하 심



진 스님 박다은 머무다래 국도영신이나판소리 등이 출연한다.
"자선음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만나고,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 범경 스님의 작은 바람이다. (02)455-1080
간지연 기자

지역신행운동 이끄는 이론과 실천토대 마련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설동근 초대회장

"거름이 필요합니다. 기복 불교를 벗어나 부처님 정법을 숭보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학술적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거름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10월 3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창립한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의 회장직을 맡은 설동근(사진) 부산시 교육감은 맡은 소임을 이렇게 밝혔다. 현재의 직책과 관련 공식종교활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기도원력으로 살아온 나로서는 불교를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서야 한다는 의무를 느낀다'고 말했다.
설 회장은 "한달에 한번 정도는 사찰을 찾아 108배 정진과 함께 스스로 돌아보고 회원의 공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학술세미나, 큰스님 초청법회 등을 통해 부산불교에 새로운 활력과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수도권에 포교 연수원 설립해 전문 포교사 배출할 터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연정열 회장

"이제는 불교도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교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연정열 회장(70·사진)이 포교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법제사의 권위자이자 법학도로서 명망이 높은 연 회장은 "사단법인인 한국도덕운동협의회(회장 조사현)와 공동으로 수도권 근교의 초등학교 폐교를 인수해 불교포교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자신감 있게 포교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포교는 신심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갖춰야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포교연수 프로그램은 한국불교사, 오법, 좌담술, 충효·예절·도덕 교육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 폐교인수를 마치고 상반기 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 회장은 지난 6월 한국 8개 종교 성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정 흥법사'로 취임식을 가졌다.
한명우 기자



운주사의 모든 것 정성껏 소개

전국문화관광해설사 대상 박해소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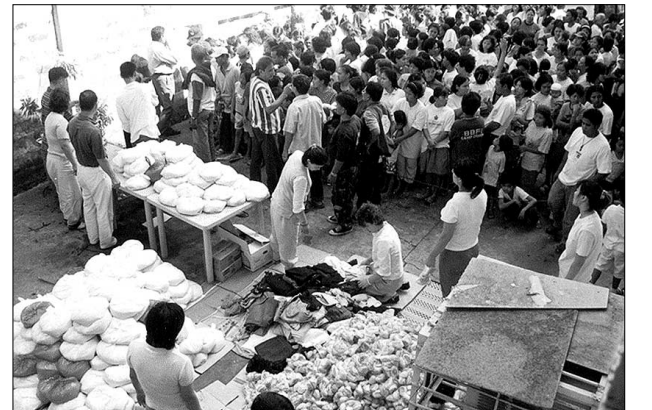
"현대문명에 지친 이들이 운주사 탑과 불상 앞에서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이처럼 운주사가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소개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10월 27일 한평 생태공원에서 열린 '제1회 문화관광 해설사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박해소(운주사 문화해설사·사진)씨는 "가장 서민적인 사찰 운주사의 내면을 전국에 알리게 돼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운주사에서 4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일마다 참배객들에게 친절함을 안내하고 있는 박씨는 "뜻생기고, 상처가 많이 붙었지만 불상들이지만 세상사에 지친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위안을 받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이준영 기자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 불우이웃돕기

경주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주지 법관)은 10월 31일 필리핀의 대표적인 빈민마을인 피나투보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펼쳤다. 필리핀 포교원은 현지 주민 3백여 가구에 쌀 10가마, 빵 500봉지, 옷 5박스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의료 봉사도 펼쳤다. 주지 법관 스님은 "피나투보 지역은 1991년 화산대폭발이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 신도들이 화산폭발 피해지역인 피나투보를 방문 지역 주민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불국사 필리핀 포교원

났던 곳이라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이곳은 수도 마닐라에서도 8시간 정도 거리의 오지에 있기 때문에 구호의 손길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

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의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은 필리핀 민영방송인 '스튜디오 23 TV' 채널에서 40여분간 다큐멘터리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강릉 등명낙가사 일주문 낙성식



강릉 등명낙가사(주지 청우 일주문 낙성식 및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산사음악회가 10월 28일 일주문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심재업 국회의원 등 60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청우 스님은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11월 1일 KBS홀에서 제4회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서 관객들까지 한마음으로 소아암 환아들의 완치를 기원했다.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환아에게 지원됐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52501-04-004006(예금주 니르바나)

인천중부경찰서 불교회 창립 3주년 기념법회



인천중부경찰서 불교회(회장 이관열)는 10월 27일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창립3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인천중부경찰서 경순 보문(원철사 주지), 태고종 인천교구중무원장 대은 스님과 김영열 인천중부경찰서장, 인천제가불자연합회 문용대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대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화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깝게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명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보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